지난 17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사진 왼쪽)이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사진 오른쪽)의 고문으로 위촉됐다./사진제공=부영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캄보디아 왕국 훈 마넷 총리의 고문으로 위촉됐다. 부영은 17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순 찬돌 부총리 겸 개발위원회 부위원장, 참 니몰 상무부 장관, 치링 보텀 랑사이 주한 캄보디아 대사와 캄보디아 부처 및 부영그룹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이 회장이 고문 위촉장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훈 마넷 총리가 한국 기업인에게 직접 고문 위촉장을 수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회장은 고문으로서 캄보디아의 경제 개발을 비롯해 정책 의사 결정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부영은 캄보디아에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왔다. 최근에는 캄보디아에 버스 1300대를 비롯해 라오스 700대 등 총 2000대의 버스를 기증하기도 했다.또 국기 태권도 발전 기금 약 55만 달러를 비롯해 컨테이너 3대 분량의 의류, 신발 등을 기부하고 응급차를 비롯한 의료기금 지원 등을 이어 나가고 있다.캄보디아 주거 환경 개선에도 앞장서고 있다. 수도 프놈펜에 1만5000가구 규모의 주택 단지를 건설 중이다.현재 아파트 1474가구를 포함한 주상복합단지 공사가 완료돼 분양 예정이다. 단지 인근에는 어린이집·유치원 및 초·중·고교, 간호대학까지 71개 교실 약 18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우정 캄보디아 학교'가 개교할 예정이다.이 외에도 최근에는 프놈펜한국국제학교를 인수해 운영하고 있다. 프놈펜한국국제학교는 전 세계 34번째로 문을 연 교육부 정식인가 한국국제학교다.